

##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생태계의 인류는 도시 내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도시민들은 환경이 건전한 도시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내 환경문제 해결 및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 및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도시가 등장하였으며, 녹색도시, 지속가능도시, 문화도시와 함께 정의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론, 생태문화사회론, 사회자본론, 문화경관론 등이 기초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생태도시의 개념이 현실화 되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또한 도시의 발전과정에 따라 녹색도시, 환경도시, 생태도시, 생태공학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에코시티 또는 에코폴리스 등의 용어들로 발전되어 왔다.

생태도시와 더불어 문화도시는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도시 등에 문화도시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들의 경우 주요 시정 목표를 문화도시로 내세우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문화도시는 지자체들에 무시할 수 없는 목표가 된 것으로 보였다.

서울특별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에서는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울’을 강조하고 계획목표로 ‘동북아를 선도하는 세계도시, 서울다움이 느껴지는 문화도시, 자연이 되살아나는 생태도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복지도시 등을 제시